

불교 대중화·독립운동...송광사 자료 한눈에

조계총림 설립 50주년 기념 '송광사 근현대자료 특별전'

'임제종 종무원 설립계약서' 만해 한용운 스님 유묵 등 정보박물관서 연말까지 전시 찬불가·불교 연극대본 첫 공개

순천 송광사는 조계종 3대 사찰, 8대 총림에 속하는 큰 절로 합천 해인사(법보사찰), 양산 통도사(佛寶)와 더불어 한국 삼보사찰(三寶寺刹)에 꼽힌다. 불교 교단을 이루는 세가지 요소인 불(佛)·법(法)·승(僧)이 있다. 부처님 사리를 봉안한 곳을 불보사찰, 고승을 많이 배출한 곳을 승보사찰이라 한다. 그 가운데 승(僧), 다시 말해 훌륭한 스님을 배출한 절을 승보사찰이라 한다.

올해는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다. 정치적, 사회적으로뿐 아니라 불교적인 관점에서도 지난 100년은 도전과 좌절, 고난으로 점철된 시간이었다.

송광사(주지 진화)는 조계총림 설립 50주년 기념 '송광사 근현대 자료 특별전'을 정보박물관에서 연말까지 개최한다.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이번 특별전은 "어두운 암흑의 시대에 희망의 등불을 지켜온 선사들의 흔적을 세상에 드러내는 뜻 깊은 전시"다. 특히 송광사 근현대 관련 자료가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번 전시를 계기로 자료적·사료적 측면을 사람들과 공유하자는 취지를 담았다. 전시는 모두 3장으로 구성돼 있다. 제1

장은 '일제강점기 송광사'가 주제다. 눈에 띄는 자료는 '임제종 종무원 설립계약서'다. 이 계약서는 한일병탄(1910년) 이후 일제가 원종(圓宗)을 앞세워 조선불교를 일본불교에 종속시키려 하자 이에 저항해 1911년 1월 15일 송광사에 '조선임제종 종무원'을 설립한다는 내용이다. 1911년 3월 12일 송광사에서 작성된 이 문서는 이후 원종과 대립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소송과 관련해 김학산, 전재용, 박한영 스님 등이 필요한 대응과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해 한용운 스님 유묵'도 눈여겨볼 만하다. 만해(1879-1944)는 1911년 이회광 일파의 친일매불 책동을 격려하기 위해 불교자주화운동을 주도했다. 1913-1914년 조선불교유신론과 불교대전을 간행했으며 1919년 3·1운동 대표로 참여했다. 전시 작품은 '상후리번(霜後籬邊)' 외 1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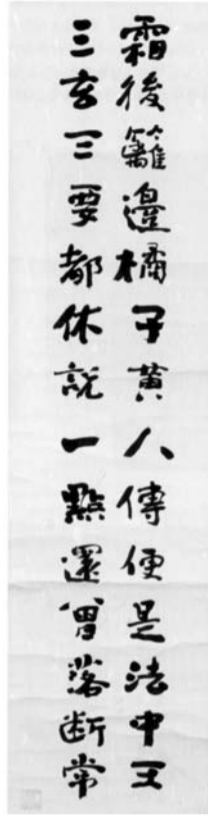
보성 출신 박상전 스님의 승적부 및 재판기록도 볼 수 있다. 당시 불교중앙학원을 다니던 3·1운동에 참여했던 스님은 그 일로 옥고를 치렀다. 이밖에 '송광사 승적부', '송광사 인장', 일제강점기 불교잡지인 '佛敎(조선불교월보제8호)'도 귀중한 자료다.

제2장은 '해방이후 송광사'가 중심을 이룬다. 1945년 해방이후 1974년까지 사용된 태극기로 송광사 도성당 앞에 걸려있었던 '태극기'가 눈에 띈다. 1950년대 송광사가 보유한 대광유지 주식 431주를 재단법인 동국대학에 양도하면서 작성한 청구서 '주식양도에 대한 주주명의 변경

청구서'도 있다. 이 청구서는 해방 이후 동국대학의 질적, 양적 성장을 위해 당시 불교계의 후원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다. 이밖에 승주 출신 '박태섭(1910~1980) 스님 인장', 현대한국사찰 '사지(寺誌)' 표시로 꼽히는 '대승선종 조계산 송광사지' 등도 비치돼 있다.

제3장은 '승보사찰 조계총림 송광사'의 다양한 면모와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주를 이룬다. 최늘 스님이 조선 후기 송광사 범맥도를 알 수 있도록 정리한 '불조하임제정맥개보'가 이목을 끈다. 석두스님이 직접 깎아 사용한 '죽비', '석두스님의 법구'도 있다. "업을 쉬고 정신을 길러라/ 다만 범부의 생각이 다를 뿐/ 따로 성인의 알음알이는 없는 것이 아니라"의 구절은 오늘날 사는 장삼이사들에게도 울림을 준다. 이밖에 '효봉스님 계승', 1969년 두 번째 총림으로 지정된 조계총림 당시 현판 '조계총림 현판'도 있다.

진화 주지스님은 "송광사가 한국불교의



만해 한용운 유묵.



1945~1973년까지 사용된 태극기.



현대한국사찰 사지 표시 '대승선종조계산 송광사지'.

정통성을 지키고 독립운동을 위해 헌신했던 자료는 물론, 당시 불교 대중화를 위해 쓰였던 찬불가와 불교 연극대본이 새롭게 발굴되어 첫 선을 보인다"고 의미를 밝혔다. 문의 061-755-0407.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정율성음악축제 '광주성악콩쿠르' 예선 경연

1차 38명 진출... 10일 2차 예선

2019정율성음악축제 '광주성악콩쿠르' (이하 광주성악콩쿠르)가 3일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진행된 남·여 1차 예선을 시작으로 열린 경연의 막을 올렸다. <사진> 지난 7월 25일 신청 마감한 남·여 부문에는 36개 대학 출신 국내외 성악도 105명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지역적으로는 서울·경기지역이 63명으로 가장 많고 광주·전남지역 23명, 베르디 국립음악원, 베를린한스아이슬러음대, 필름음대, 비엔나시립음대 등 유학생이 포함돼 있다. 테

너 18명, 바리톤 23명, 베이스 9명, 소프라노 49명, 메조소프라노 6명이 높은 기량을 선보인 결과 38명이 2차 예선에 진출했고 이 중 광주·전남출신 4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오는 10일 2차 예선에서 본선 진출을 위한 경연을 펼칠 예정이다. 본선은 오는 17일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에서 열린다. 한편 2019정율성음악축제 '광주성악콩쿠르 입상자콘서트'는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며, 사전예약을 통해 관람 가능하다. 문의 062-670-7466, 7468. /박성천 기자 skypark@

성평등 실현 위한 재단 역할 등 소개

광주여성재단 소식지

'여성, 세상과 통하는 길' 발행

광주여성재단이 1일 소식지 '여성, 세상과 통하는 길'을 발행했다. 이번 소식지의 기획특집 주제는 '광주여성재단 10년, 앞으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다. 염미봉 전 광주여성재단 대표이사, 김경신 전남대 생활환경복지학과 교수, 김신희 광주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등 8명의 여성계 인사가 설립 8년째인 광주여성 재단이 향후 10년을 향해 어떤 길을 가야할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또 광주여성사 연구, 젠더네트워크 활성화, 광주여성복합문화공간 등 재단에서 추진 중인 25개 주요 사업의 현황지와 시

행방향 등도 분석했으며 5·18, 4·3 항쟁, 아르헨티나 오월광장 어머니회 등 역사속 어머니들의 모습을 담은 김은주 사진 작가의 '그날' 전, 페미니즘 세미나·영화 상영회 등을 진행하는 '젠더 아카데미', 'With you-광주 스킵 미투 현황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워크숍' 등 재단이 시행해 온 사업 활동들을 되짚었다. 그밖에 여자가구단 '광주스웨이글스', 청년여성문화단체 '프렌리' 등 사회에서 활약하는 여성 단체들의 이야기도 함께 담았다. 문의 062-670-0500.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10일 인문학으로 영화 읽기 '부르주아와 기생충'

'인문학으로 영화 읽기' 13번째 행사가 10일 오후 6시30분 전남대 후문 문화아트에포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의 주제는 '우리 시대의 계급: 부르주아와 기생충'이다.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인 '기생충' 상영을 계기로 주제를 '우리 시대의 계급 문제'로 삼아 자본의 축적과 빈부 격차를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시각에서 살펴보는 기획

이다. 함께 볼 영화는 프랑스 영화 '부르주아의 은밀한 매력' (1972)으로 두 영화에서 드러나는 서사와 여러 함축을 통해 각자의 시각으로 우리 시대를 진단, 삶의 방식을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무료로 참가할 수 있으며 문자(010-9626-6864)로 신청할 수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과학적 사고로 우주까지 확장되는 시 세계

진현성 시인 시전집 13권 '잡풀 뗏장 한 삽'... 1133편 수록

진현성 시인(광주진내과원장)이 시전집 제13권 '잡풀 뗏장 한 삽' (한림)을 펴냈다. 지난해까지 시12집(총 9167수)을 발간한 바 있는 진 시인은 이번 제13시전집에 모두 1133편을 보태, 순수 작품으로만 합계 1만300수의 시를 창작한 셈이다. 미수(米壽88)의 연세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시인의 창작에 대한 열정은 여느 젊은 시인의 그것에 뒤지지 않는다.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도 일관되게 '테크놀로지' 세상에 대한 희원을 멈추지 않는다. 과학적 사고를 토대로 우주까지 확장되는 시세계의 스펙트럼은 깊고 다양하



다. 보통의 인문학을 공부하고 인문학에 토대를 둔 시인들과 차원이 다른 작품이 주는 낯선 감동이 만만치 않다. 관습을 깨는 파격, 논리적 사고에 기반한 시는 여느 시인들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채수영 시인의 평대로 '진현성의 시는 과학적인 판단 위에서 가장 순수한 진리를 찾아 나서는 광부의 모습'으로 귀결된다. 한마디로 소재가 일상뿐만 아니라 종교, 철학, 과학까지 아우르고 있어 '시의

우주'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준다. "내 테크놀로지 세상은 노자의 이름하지 않는 세계도, 불타의 마르세도, 톨스토이의 바보 이반의 세상도, 그리스의 디오게네스의 생각도 다 헛되고 헛된 것으로 치고 봄날의 꽃밭에 벌나비가 날아왔듯 무구한 테크놀로지만으로 향후 100여 년 구가 한가히 꽃밭만으로 살았으면 하는 바람을 맨 끝 날로 품고 싶다." 1133편의 시에는 다양한 소재들이 등장한다. '이빨', '괴수', '부처와 뉘틴', '로봇세', '유토피아', '공허', '전술', '총기', '늑대와 꽃밭', '미덕' 등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채로운 소재들로 가득하다. 김연두 전남과학대 명예교수는 "시집에 실린 시 전 편이 우리 모두에게, 자아의

뿌리를 인식시켜 줌으로써, 철학적 물음의 난제였던 세상의 구성요소가 어떤 형태였던 간에 통일성을 지향하고 있다"고 평한다. 방대한 분량만큼 시 해설에는 김은전 서울대 명예교수, 문인호 시인 등이 참여했다. 표지 제호 및 내지 축하 휘호는 담현 전명옥 서예가의 글씨이며, 캐리커처는 나원찬 화백의 작품이고 표지는 시인 근영의 작품이다. 진 시인은 평생을 해로한 아내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는다. "다음 세엔 꼭 와서 내가 앞치마를 걸지겠다는 아내에게 뻔한 거짓말만 맡겨두고, 다음 세상의 최종 이데올로기는 테크놀로지로 마감하는 날이 됐으면 한다. 주 의와 사상과 종교와 이념과 권위적 민족 국가주의가 아닌 예례를 들면 세종의 한글, 장영실의 자격루 등과 히포크라테스 정신 같은 그런 것만인."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www.aroma-life.co.kr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경일로 235 V&G빌딩
지점: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축복빌딩(도곡동 518-9)

FACE 메이크업만 하는 시대는 끝!
이제는 BODY 메이크 UP!

가능성 보정속옷 12년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육각형 사용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가공 원적외선가공

대리점·총판문의 **1588-2219**